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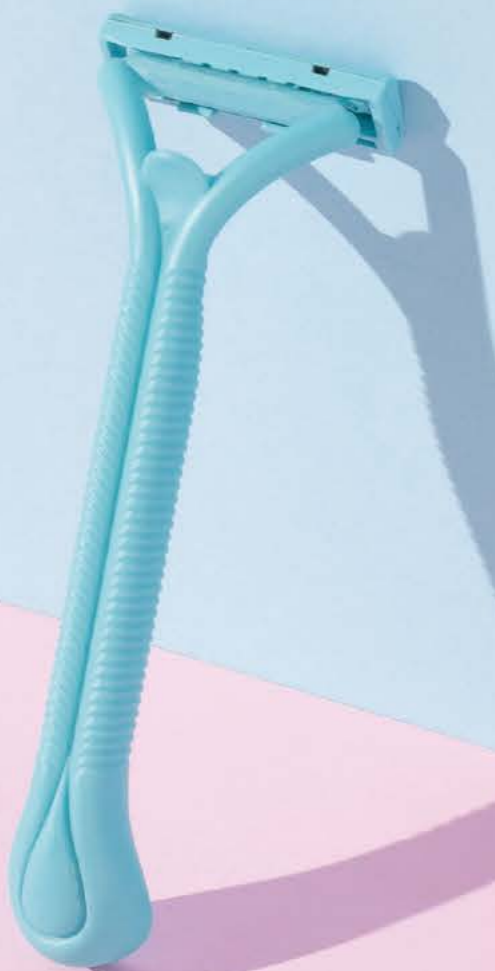
피와 눈물의 역사, 면도기

보통 남성이 평생 면도하는 데 쓰는 시간이 평균 3,000시간, 날짜로는 125일이라고 한다. 만약 면도기가 발전하지 않았다면, 훨씬 많은 시간을 들여야 했을 것이다. 조개껍데기에서 전기면도기까지, 제모에 따르는 시간과 수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준 면도기의 역사를 살펴본다.

글 편집실
참고 도서 <사물의 민낯>(김지용·갈릴레오 SNC 지음, 애플북스 펴냄)

자를 수 없다면 뽑을 수밖에

과거 인간에게 머리카락과 수염은 매우 성가신 존재였다. 사냥할 때도 방해되고, 벌레가 기생해 그대로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면도기는 미관을 위해서가 아닌 기능적 필요로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선사 시대에는 조개껍데기, 상어 이빨, 돌조각 등 다양한 재료가 면도에 동원됐다. 하지만 이런 도구는 예리하지 못해 긴 털을 다듬는 정도였을 뿐 깔끔한 면도는 어려웠다. 기원전 3세기 수메르인은 이런 불완전한 면도에 만족하지 못했다. 위생이나 기능적 측면 외에 미용적으로도 깔끔하고 싶어서였다. 하지만 당시 기술로는 정교한 칼날 제작이 불가능해 다른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 이때 개발된 게 바로 족집게다. 수메르인은 족집게로 수염과 체모를 뽑았다. 수염을 하나하나 뽑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 고통이 따랐지만 아름다운 얼굴을 위해 그들은 모든 고통을 감내했다. 로마인은 머리털과 눈썹을 제외한 모든 체모를 혐오했다. 예리한 칼날이나 거울이 귀했기에 스스로 수염을 깎을 수는 없었지만, 대신 이발사를 찾아가 면도했다. 이발사를 정기적으로 찾아가 면도하는 건, 그만큼 돈이 많다는 의미였기에 깔끔한 턱은 부와 권력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크림이나 비누가 없던 시절, 아무리 숙련자라도 피를 보지 않고 면도를 끝내는 건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베인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연고 제작 기술이 발달했고, 이발사가 의사를 겸하는 경우도 많았다. 영어로 이발사를 의미하는 바버(Baber)는 라틴어의 바르바(Barba)에서 유래했는데, 이는 수염을 뜻한다. 중세 시대까지 제모와 면도가 이발소의 주된



1 과거 바버(Barber)숍은 이발이 아닌 제모와 면도가 주된 업무였다.
2 면도기의 대명사이자 오늘날 전 세계 면도기 점유율 1위의 '질레트(Gillette)' 면도기.
3 질레트는 1946년 업계 최초로 '블루 블레이드(Blue Blade)'라는 교체 면도날을 개발했다.

업무였던 셈이다. 면도와 제모의 고통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었다. 이는 황제도 마찬가지. 이에 네로 황제가 면도를 포기하고 수염을 기른 일은 유명하다. 이후 다른 황제도 점차 면도를 피했고, 결국 로마 전체에 면도 대신 수염을 기르는 게 유행처럼 번졌다. 1세기 이후 로마 황제의 동상에 수염이 묘사된 이유다.

점점 진화하는 면도기

1762년, 프랑스의 장인 장 자크 페레가 안전면도기의 초석이 될 보호막을 개발했다. 면도하는 동안 피부를 보호하도록 칼날 주변에 나무 슬리브를 부착한 단순 장치였지만, 면도 역사에서는 혁명과도 같은 일이었다. 이후 1880년 독일인 캠페(Kampfe) 형제가 스타(Star) 면도기를 개발했는데, 칼날이 쉽게 무더지는 단점을 극복하려고 톱니 모양의 칼날을 도입한 덕분에 좀 더 안전한 면도가 가능해졌다. 오늘날 면도기의 대명사로 불리는 질레트사 창업자 킹 캠프 질레트(King Camp Gillette)는 스타 면도기의 팬이었다. 당시 스타 면도기는 고가였음에도 시간이 지나면서 칼날이 무더져 자꾸 베이는 게 단점이었다. 기존처럼 칼날을 갈아 쓰자니 번거롭고, 비용도 많이 들자 질레트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손잡이 말고 칼날만 갈아 끼울 수 있다면 어떨까?" 오늘날 전 세계 면도기

점유율 1위 기업 질레트는 이 단순한 발상의 전환에서 탄생했다. 면도기 역사에서 새 지평을 연 건 미 육군 대령 제이콥 슈크(Jacob Schick)가 개발한 전기면도기다. 그가 군 복무를 했던 알래스카는 물을 구하기 힘든 데다 그나마도 얼어붙어 면도가 어려웠다. 슈크는 물 없이도 면도할 방법을 생각하다 전기면도기를 고안했다. 1931년부터 시판된 슈크의 전기면도기는 물이나 크림 없는 면도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여전히 면도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면도기의 기술력과 안전성은 기원전부터 시작된 피와 눈물을 바탕으로 한 노력과 고민의 결과이지 않을까.

